

## 형이상학적 원리로서의 무모순율: 모순이 관찰 가능한가? \* \*\*

송 하 석

**【국문요약】** 이 논문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가 설득력 있는 견해인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글은 “진리 대응설과 양진주의는 양립가능한가?”, “관찰 가능한 모순이 존재하는가?” 즉 “경험세계가 비일관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무모순율은 언어나 사고의 원리인가, 형이상학적 원리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함으로써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진리 대응설과 양진주의가 양립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전진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진리 대응설과 양진주의가 양립 가능하지 않다고 논증하고, 무모순율을 세계를 제한하는 배제의 원리로 이해해야 함을 보이고, 이로부터 실제 세계는 일관된 세계이며, 모순은 실재하지 않음을 논증한다.

**【주요어】** 무모순율, 양진주의, 초일관주의 논리, 의미론적 역설, 진리 대응설

접수일자: 2014.09.17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4.10.04 게재확정일: 2014.10.09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A8024381)

\*\* 이 논문을 읽고 유익한 심사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지적을 모두 이 수정본에서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이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중요한 자극이 되었다.

## 1. 들어가는 말

메이어(E. Mares)는 참인 모순인 문장, 즉 양진문장(dialetheia)이 있다고 주장하는 양진주의를 의미론적 양진주의(semantic dialetheism)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meatphysical dialetheism)로 구별하였다. 의미론적 양진주의에 따르면, 양진문장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실제 세계에 모순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세계가 비일관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참인 모순은 일관적인 세계를 기술하는 언어의 문제일 뿐, 실제 세계에 모순이 존재하거나 관찰 가능한 모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는 실제 세계가 일관적이라고 가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세계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sup>1)</sup>

메이어는 프리스트(G. Priest)를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자라고 분류하지만, 프리스트는 이 점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프리스트는 Priest(1999)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모순이 관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찰 가능한 세계가 모순적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Priest(2000)에서는 진리 대응설을 비롯한 어떤 진리 이론도 양진주의와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진리 대응설을 소박하게 설명하면, 어떤 문장이 참이라면 그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그 객관적 사실과 문장이 대응할 때 그 문장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진리론이다. 그렇다면 참인 모순문장이 있다는 양진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진리 대응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참인 모순이 객관적 세계에 존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관찰 가능하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프리스트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양진주의와 진리 대응설이 양립가능한가

<sup>1)</sup> Mares (2006), pp. 265-266.

이다.

볼(JC. Beall)과 콜리반(M. Colyvan) 등은 경험세계가 일관된 것이라고 가정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모순이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관찰 가능한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프리스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명백하게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를 옹호한다.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는 경험세계에 모순이 존재하는가, 즉 관찰 가능한 모순이 존재하는가이다. 크룬(F. Kroon)과 베르트(F. Berto) 등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를 비판하면서 실제 세계의 무모순성을 지지한다.<sup>2)</sup> 과연 관찰가능한 모순이 존재하는가?

타코(T. Tahko)는 경험세계는 일관된 세계이며 모순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모순율(이하, LNC)을 논리적 원리 이전에, 세계의 구성 원리로서 일종의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주장한다. 이 글이 마지막으로 답하고자 하는 문제는 LNC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즉 LNC를 단순히 인간의 사고와 언어의 원칙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이며 세계의 존재에 대하여 모종의 제한을 가하는 형이상학적 원리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LNC가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제한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타코의 논증이 옳다면, 관찰 가능한 경험세계에 모순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진리 대응설을 포함해서 모든 진리론은 양진주의와 양립가능하다는 프리스트의 주장과 그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면서 보다 세련된 논증을 제시한 아모어-갑

2) 크룬은 Kroon (2006)에서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라는 용어 대신 실재론적 양진주의(realist dialetheism)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실재론적 양진주의를 비판하고, 베르토는 Berto (2008)에서 의미론적 양진주의를 옹호하기보다는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은 의미론적 양진주의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진주의자임을 시사하고 있다.

(B. Armour-Gab)과 불의 논증을 살펴볼 것이다(2절). 그리고 모순이 경험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프리스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불과 켈리반의 비판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다(3절). 끝으로 LNC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정식화)에 주목하면서 LNC를 세계의 구성방식이며, 세계의 토대, 즉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주장하는 타코의 논증을 분석할 것이다(4절). 결론적으로 진리 대응설과 양진주의는 양립하기 어렵고, 실제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순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세계는 일관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LNC는 우리의 사고나 언어의 기본법칙일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주장할 것이다.

## 2. 진리 대응설은 양진주의와 양립가능한가?

프리스트는 진리 대응설을 “참인 진리 담지자는 실재(reality)와 대응”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정의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대응 개념을 어떻게 분명하게 설명하는지에 있다고 말한다. 우선 진리 대응설은 그것을 사실(fact)이라고 부르는 사태(state of affairs)라고 부르는 “서울은 대한민국에 있음”과 같이 대상(object) 이상의 무엇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즉 진리 대응설은 참인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제조사(truth-maker)로서 사실이나 사태의 존재를 가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진주의와 진리 대응설이 일관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양진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대상 이상의 사실이나 사태가 실제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프리스트는 “어떤 모순이 참이라면, 세계는 그 모순을 참으로 만드는 그런 세계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는 모순적[비일관적]이다.”고 말한다.<sup>3)</sup> 그러

<sup>3)</sup> Priest (2006), p. 299. 메이어는 프리스트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를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직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사태와 그 문장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직관에 대한 프리스트의 반론을 살펴보자.

실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속성과 관계의 집합, R과 대상들의 집합, D 그리고 극성(polarities)의 집합  $\pi=\{0,1\}$ 를 포함한다. (...) (잠재적) 원자적 사실은  $\langle r_n, d_1, \dots, d_n, i \rangle$ 와 같은 순서쌍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r_n$ 은 R에 속하는 원소이고,  $d_1, \dots, d_n$ 은 D에 속하는 원소이며,  $i$ 는  $\pi$ 의 원소이다. 즉 우리는 하나의 사실  $\langle r_n, d_1, \dots, d_n, 1 \rangle$ 을  $d_1, \dots, d_n$ 이 (순서대로) r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의 사실  $\langle r_n, d_1, \dots, d_n, 0 \rangle$ 은  $d_1, \dots, d_n$ 이 (순서대로) r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자체, W는 원자적 사실들의 집합, 즉 현실화된 원자적 사실들의 집합이다.<sup>4)</sup>

이제 L을 원자 술어( $P_n$ )에 대상을 귀속시킴으로써 얻어지는 문장들의 집합과 그 문장들에 대한 부정, 연언, 선언을 포함하는 언어라고 하고,  $\delta$ 는 L의 상황과 술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함수라고 하자. 어떤 문장  $\beta$ 가 어떤 세계 W에서 참이라는 것을 ( $W \vDash_T \beta$ )라고 쓰고, 그 문장이 그 세계에서 거짓이라는 것을 ( $W \vDash_F \beta$ )라고 쓰면 다음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W \vDash_T P_n(a_1, \dots, a_n) &\text{ iff } \langle \delta(P_n) \delta(a_1) \dots \delta(a_n), 1 \rangle \in W \\ W \vDash_F P_n(a_1, \dots, a_n) &\text{ iff } \langle \delta(P_n) \delta(a_1) \dots \delta(a_n), 0 \rangle \in W \\ W \vDash_T \neg \beta &\text{ iff } W \vDash_F \beta, \\ W \vDash_F \neg \beta &\text{ iff } W \vDash_T \beta \\ W \vDash_T \beta \vee \gamma &\text{ iff } W \vDash_T \beta \text{ or } W \vDash_T \gamma \\ W \vDash_F \beta \vee \gamma &\text{ iff } W \vDash_F \beta \text{ or } W \vDash_F \gamma \end{aligned}$$

4) Priest (2000), p. 315.

첫 번째 정식은 문장 ‘ $P_n(a_1, \dots, a_n)$ ’이  $W$ 라는 세계에서 참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langle \delta(P_n), \delta(a_1), \dots, \delta(a_n), 1 \rangle$ 이라는 긍정적 사실이  $W$ 에 존재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정식은 그 문장이  $W$ 에서 거짓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delta(P_n), \delta(a_1), \dots, \delta(a_n), 0 \rangle$ 이라는 부정적 사실이  $W$ 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프리스트는 “ $W$ 는 긍정적 사실,  $\langle r_n, d_1, \dots, d_n, 1 \rangle$ 과 그 사실에 대응하는 부정적 사실,  $\langle r_n, d_1, \dots, d_n, 0 \rangle$ 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순이 참일 수 있다고 말한다.<sup>5)</sup>

물론 진리 대응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참인 모든 문장에 대응하는 사실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선언문장이나 귀납적 일반화의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의 참 등은 많은 기본적 사실들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진주의와 진리 대응설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계에 양진문장에 해당하는 사실은 긍정적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부정적 사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프리스트는 극성 개념을 도입하여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원자적 사실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독립적인 존재자이고, 자유롭게 섞이고 결합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을 압도할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그러한 고려사항은 사실에 관한 이론이나 진리 대응설로부터 도출되는 논증이 아니고, 참인 모순의 존재와 완전하게 양립가능하다.<sup>6)</sup>

그런데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양진문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객관적인 진리제조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진리 대응설을 취하는 형이상학적

5) 위의 논문, p. 315.

6) 위의 논문, p. 318.

양진주의자들은 양진문장인 거짓말쟁이 문장,  $\lambda$ 에 대응하는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lambda$ 에 대응하는 사실을  $S(\lambda)$ 라고 하면,  $\lambda$ 는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기 때문에  $S(\lambda)$ 는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프리스트가 설명하는 것은 참인 부정적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 제조자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일 뿐, 하나의 사실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아모어-갑과 불은 “양진주의자들도 임의의 [사태]  $S$ (any  $S$ )에 대해서  $S$ 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S$ (some  $S$ )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7)</sup> 다시 말해서 모든 사실에  $S$ 에 대해서  $S$ 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diamond\{(\exists S)S \wedge \neg(\exists S)S\} \wedge \neg\diamond\{(\exists S)S \wedge \neg(\exists S)S\}$$

즉 어떤 사실 ‘ $S$ ’에 대해서 ‘ $S$ 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음’은 가능하면서 동시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진리 대응설을 받아들이는 양진주의자들은  $\lambda$ 와 같은 양진문장에 대응하는 사태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비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 $S(\lambda)$ 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lambda$ 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임을 이해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sup>8)</sup> 그러나 그들

7) Armour-Gab & Beall (2002), p. 220.

8) 위의 논문, p. 221.

의 견해에 따르면, LNC도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양진문장이다. 그들도 이 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diamond(\beta \wedge \neg\beta) \wedge \neg\diamond(\beta \wedge \neg\beta)$$

그러므로 양진주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것이 가능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못할 이유가 없게 된다. 물론 그들이 임의의  $\beta$ 에 대해서 위의 정식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어떤 사태  $s$ 에 대해서 그  $s$ 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명제  $\beta$ 가 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들도 양진주의에 대한 반대자들이 주장하듯이, 어떤 사태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또 양진주의에 대한 반대자들과 달리 어떤 사태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음이 가능하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sup>9)</sup>

아모어-갑과 불은 어떤 사태가 어떻게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는 ‘관찰 가능한 사태’를 상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프리스트처럼 그들도 Armour-Gab & Beall(2002)에서 관찰 가능한 참인 모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데 강하게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관찰 가능한 사태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과 같은지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실로부터 양진문장이 대응하는 사실인  $S(\lambda)$ 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이해할 수 없

9) 위의 논문, p. 221.



다는 주장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LNC를 양진문장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문장에 대해서 불가능함과 가능함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떤 사태가 존립하면서 동시에 존립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진주의(trivialism)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어떤 명제  $\theta$ 가 불가능한 명제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LNC가 양진문장이라면,  $\theta$ 가 불가능한 명제라는 사실로부터  $\theta$ 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 나오지 않는다. 즉  $\theta$ 는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가능할 수 있고, 어떤 문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문장의 가능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진주의가 불가피하게 따라 나올 것이다. 이 점은 아모어-갑과 불도 인식하고 있다. 이 논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theta$ 는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즉  $\neg \diamond \theta$ 이다.
- 2) LNC가 거짓일 수 있다면, 참인 문장의 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3) 아모어-갑과 불은 LNC가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4) 아모어-갑과 불에 따르면,  $\neg \diamond \theta$ 의 부정, 즉  $\diamond \theta$ 을 받아들일 수 있다.
- 5) 그러므로 아모어-갑과 불에 따르면, 거짓임이 증명된 것에 대해서도 참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 6) 그러므로 아모어-갑과 불에 따르면, 어떤 문장에 대해서도 결정적으로 거짓임이 증명될 수 없고 따라서 전진주의가 따라 나온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전진주의는 논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LNC를 양진문장이라고 주장

하는 아모어-갑과 불의 견해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 않게 된다. 거짓이라고 증명된 그 명제가 거짓이기도 하지만 그 증명으로 그 명제가 참일 수 있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제가 거짓임이 증명되었다고 해도 그 명제가 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그들의 대응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이 전진주의로의 가능성을 막지 못하고 위 반론이 건전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양진주의자들의 걱정거리일 수는 없다고 답한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견해가 전진주의와 양립가능하고 나아가서 전진주의의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지만, 전진주의는 옳은 것으로 확립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략에 의해서 전진주의가 따라 나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진주의자들이 원칙적으로 거짓임이 입증된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점은 양진주의자들의 걱정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전략의 사용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전략이 전진주의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될 수 없다.<sup>10)</sup>

즉 그들은 양진주의와 진리 대응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신들의 전략에 따르면 전진주의까지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진주의는 그 자체로 문제를 지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도 성공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반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문제가 많은 또 다른 견해가 귀결된다면 그래서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원래의 견해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10) 위의 논문, p. 223.

것이기 때문이다.

### 3. 관찰가능한 모순이 존재하는가?

프리스트는 Priest(1999)에서 우리가 모순적인 지각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모순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관찰 가능한 세계에 모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만약 관찰 가능한 세계가 비일관적이어서 모순이 실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각했을 것이다.
- (2) 기이한 착시나 망상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순을 지각하지 않는다. 즉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완전히 일관적이다.
- (3) 따라서 관찰 가능한 세계는 일관적이다.<sup>11)</sup>

이에 대해서 볼은 Beall(2000a)에서 위 논증의 두 전제를 모두 비판한다. 그는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관찰 가능한 세계가 비일관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존재하는 모순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우리 인간은 일관성 여과기(consistency filters)와 같은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모순적인 현상도 그것을 일관된 것으로 걸러서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순을 관찰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 실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여과기의 효과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리스트가 지적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여과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다. 만약 우리가 그런 여과기를

---

<sup>11)</sup> Priest (1999)의 주된 주장을 불과 켈리반이 정리한 것이다. Beall & Colyvan (2001), p. 564.

가지고 있다면 에셔의 그림을 볼 때와 같은 기이한 착시나 망상에 서처럼 우리가 실제로 모순을 지각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sup>12)</sup> 이런 지각 경험은 만약 모순이 실재한다면 우리가 모순을 지각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일관성 여과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을 만한 훌륭한 증거가 될 것이다.

불은 경험세계에 모순이 존재한다면 그 모순은 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것이 관찰될 수 있음(could be observed)과 관찰되었을 것임(would be observed)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eta \wedge \neg \beta)$ 가 관찰 가능한 모순이라고 해보자. 정의상  $(\beta \wedge \neg \beta)$ 은 관찰될 수 있다. 그렇다고  $(\beta \wedge \neg \beta)$ 이 관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일관성 여과기 같은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관찰 가능한 사실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관찰될 수 있는 모순이 실재한다면 그 모순은 관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할 어떤 경험적 증거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 아무런 선행적인 이유도 없다. 결국 ‘할 수 있음’으로부터 ‘했을 것임’을 추론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처럼, 관찰 가능한 모순이 있다면 관찰되었을 것이라는 프리스트의 논증의 전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불의 반론이다.

이러한 불의 반론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응답은 관찰 가능한 참인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관찰되었을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불은 우리가 모순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불에 따르면, 우리는 모순이 어떤 것과 같아 보일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12) 프리스트는 Priest (1999)에서 에셔의 그림 이외에도 스처스터 그림(Schuster figure)과 펜로우즈 그림(Penrose figure), 그리고 운동과 관련한 모순 지각 현상으로 폭포수 효과(waterfall effect) 등을 제시한다. Priest (1999), pp. 440-442.

그것을 관찰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모순이 어떤 것과 같은 것일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모순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모순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도 불은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는 어떤 모순은 그 모순의 연언지 중 하나가 어떤 모습일지와 정확하게 같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 $\gamma$ ) (내가 기르는 고양이) 야옹이가 책상 위에 있다.

야옹이가 책상 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단지 ' $\neg\gamma$ '만을 본다. 우리가 보는 것은 ' $\gamma \wedge \neg\gamma$ '와 같은 모순이 아니고 단지 ' $\neg\gamma$ '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불은 그러나 왜 ' $\gamma \wedge \neg\gamma$ '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 $\neg\gamma$ '와 같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지 반문하면서 다음의 예를 제시한다.

석이는 피아노 앞에 있고 그 피아노 주위에 불투명한 천이 드리워져 있다.

' $\alpha$ '를 '석이가 피아노 앞에 있다'를 ' $\beta$ '를 '그 피아노 주위에 불투명한 천이 드리워져 있다'를 나타낸다고 하자. 이 경우, ' $\alpha \wedge \beta$ '는 정확하게 ' $\beta$ '와 같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 $\gamma \wedge \neg\gamma$ '은 이와 정확히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가? 그러나 불의 이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alpha \wedge \beta$ )가 실제 세계에서 참이지만  $\alpha$ 는 관찰할 수 없고  $\beta$ 만 관찰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 $\gamma \wedge \neg\gamma$ )도 실제 세계에서 참이지만  $\gamma$  또는  $\neg\gamma$ 만을 관찰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 $\alpha \wedge \beta$ )는 실제 세계에서 참일 수 있지만, ( $\gamma \wedge \neg\gamma$ )도 실제 세계에서 참

일 수 있는가이다. 볼은 지금의 논증은 단순히 모순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그것의 관찰 가능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고 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두 상황의 유비는 그럴듯하지 않다.  $(\alpha \wedge \beta)$ 에서는 두 개의 사태가 양립 가능하지만 하나의 사태가 다른 사태의 관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만, 이와 달리  $(\gamma \wedge \neg \gamma)$ 에서는 하나의 사태가 다른 사태의 관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태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볼은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논점선취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alpha \wedge \beta)$ 임에도 불구하고  $\beta$ 로 관찰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지만, 그 경우는 다른 경험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gamma \wedge \neg \gamma)$ 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alpha \wedge \beta)$ 가  $\beta$ 로 관찰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gamma \wedge \neg \gamma)$ 가  $\neg \gamma$ 로 관찰되는 사례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두 사실 사이에는 심각한 비유사성이 있음에 분명하다.

볼은 이런 반론에 대해서 모순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모순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할 것이다. 즉  $(\gamma \wedge \neg \gamma)$ 와 같은 모순을 관찰하는 것도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모순을 관찰하면서도 그것을 모순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볼은  $(\gamma \wedge \neg \gamma)$ 보다 더욱 강화된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delta$ ’를 관찰 가능한 참이라고 하자. 프리스트에 따르면, ‘ $\neg \delta$ ’는 (물론 참은 아니지만) 관찰 가능하다. 이제 ‘ $\delta \wedge \neg \delta$ ’가 참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프리스트에 따르면, 그것도 관찰 가능하다. 그러나 합리적인 원리[프리스트의 논리체계인 LP]에 의해서 다음도 관찰 가능하게 된다.

$$(\delta \wedge \neg \delta) \wedge \neg (\delta \wedge \neg \delta)$$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관찰한 적이 있는가? 또 그것은 무엇과 같이 보인다고 생각해야 하는가?<sup>13)</sup>

볼에 따르면, 프리스트처럼 모순을 지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실제로 있을 경우 그것이 무엇과 같이 보일 것인지를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그의 전략은 관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모순도 경험한 적이 없음을 안다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리스트는 “우리는 모순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일상적인 관찰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순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순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상적 관찰에 근거해서 대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볼의 주장이다.<sup>14)</sup>

그러나 여전히 볼은 모순의 관찰 가능성을 “모순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알 수 없음”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모순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 알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할 부담은 모순의 관찰 가능성을 허용하는 볼에게 주어 져야 한다. 결국 모순의 관찰 가능성은 논쟁적인 문제로 남겨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우리는 직관에 호소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관찰 가능한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 입증부담이 주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볼과 켈리반은 프리스트의 위의 논증을 비판하는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관찰 가능한 모순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관찰 가능한 모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하려고 한다. 그들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모순의 예로 “이 형질 조각이 자

<sup>13)</sup> Beall (2000a), p. 115.

<sup>14)</sup> Beall (2000a), pp. 114-115.

청색(purplish- blue)임”을 든다. 자청색의 형질 조각은 청색(blue)이면서 동시에 청색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어떤 사태가 관찰 가능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i) 어떤 사태  $\sigma$ 임이 사실이라는 것이 관찰될 수 있다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그 사태  $\sigma$ 는 관찰 가능하다. (ii) 어떤 사태 자체가 관찰될 수 있다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그 사태는 관찰 가능하다.” 그리고 불과 켈리반은 (i)을 약한 의미의 관찰 가능함으로 (ii)를 강한 의미의 관찰 가능함으로 부른다.<sup>15)</sup> 이렇게 구별하고 나면, 자청색의 형질에서 모순을 볼 수 있다고 할 때 관찰 가능함은 단순히 약한 의미에서 관찰 가능함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청색의 형질 조각의 청색임을 보고 동시에 그 조각의 보라색임, 즉 청색이 아님을 관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자청색의 형질 조각에서 모순을 강한 의미에서 관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자청색의 형질을 볼 때, 또는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호한 사람을 볼 때, 모순을 본다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단지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 우리는 자청색의 형질을 보고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호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보는 것일 뿐 아닌가? 불과 켈리반이 예상하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모순을 관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약한 의미에서 관찰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그렇다면 강한 의미에서 관찰 가능한 사실은 거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구가 돈다는 사실도 강한 의미에서 관찰할

15) 위의 논문, p. 565. 약하게 관찰 가능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돌이가 어떤 행위를 행함을 직접 관찰하지 않더라도 여러 증거와 추론을 토대로 돌이가 그 행위를 행함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돌이가 그 행위를 행했음을 약하게 관찰 가능하다고 한다.



수 없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회전하는 하늘이다. 우리가 지구가 돈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수많은 추론과 이론이 관계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모순이 강한 의미에서 관찰 가능하다는 것을 확립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많은 다른 직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들 (지구가 돈다는 것과 같은)과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모순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한 셈이다.<sup>16)</sup>

그들은 관찰 가능한 모순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기이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아가서 프리스트는 관찰 가능한 모순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순을 본다면 그것을 인식할 것이다.”고 전제하는데, 우리가 자청색을 보면서 모순을 본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그 전제의 반례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모호성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히 세계에 대한 우리의 기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즉 모호성은 관찰 가능한 세계의 특성인 것이다. 최선의 과학 이론의 언어는 세계를 정확하게 표상한다고 생각할 만하고, 따라서 최선의 과학이론의 언어가 모호하다면 그것은 세계의 특성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볼과 켈리반은 관찰 가능한 세계에 모순이 있어도 반드시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우리는 실제로 모순을 관찰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모호한 대상과 같이 관찰 가능한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프리스트의 논증을 비판한다. 프리스트의 첫 번째 전제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받아들일 만하다. 즉 관찰 가능한 세계에 모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관찰하지 못했거나 관찰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순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관찰 가능한 모순이 있다는 것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찰 가능한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모호한 대상을

---

16) 위의 논문, p. 566.

제시한다. 과연 모호한 대상을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호한 대상을 관찰 가능한 모순의 사례로 제시하는 그들의 주장을 타코의 LNC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평가해보자.

#### 4. 형이상학적 원리로서 무모순율

타코는 LNC를 논리적 원리라기보다는 세계를 구성하는 실제의 구조를 제한하는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주장한다. 이를 논증하기 전에 그는 LNC에 대하여 “P이면서 동시에 P가 아닐 수 없다”는 정식화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하면서, LNC에 대한 올바른 정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제시한다.

동일한 속성이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관점에서 동시에 속하면서 속하지 않을 수 없다.<sup>17)</sup>

LNC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면, LNC는 어떤 대상이 배타적인 두 개의 속성을 지닐 수 없다는 직관을 표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정식에서 사용된 부정(not)은 베르토(F. Berto)와 그림(P. Grim) 등의 용어를 따라 다음과 같은 “배제 형성의 부정(exclusion-forming negation)”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x는  $\Phi$ 가 아니다  $\leftrightarrow$  x가  $\Psi$ 인 그러한  $\Psi$ 가 있고  $\Psi$ 임은  $\Phi$ 임을 배제한다.

타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LNC가 ‘부정’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sup>17)</sup> Aristotle (1984), 1005b19-20.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The same attribute cannot at the same time belong and not belong to the same subject in the same respect.”

LNC에서 중요한 점은 동시에 어떤 속성을 가짐과 그 속성을 결여함의 배타성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LNC의 정의에 사용된 부정을 배제 형성의 부정으로 이해하면 LNC를 다음과 같은 배제의 원리(principle of exclusion)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떤 존재자가 P이면서 동시에 P가 아니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for an entity to be P and to be not P.)

즉 LNC가 말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어떤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결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LNC를 이해하면 LNC는 명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대상에 관한 제한을 하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세계를 구성하는 실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원리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정신 독립적인 실재로서 존재자들은 아마도 어떤 종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존재자에 대해 우리가 경험하는 질서는 없을 것이다.) 즉 어떤 종류의 존재자가 어떤 종류의 속성을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없음에 대한 제한이 있다. (...) 실체는 무모순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sup>18)</sup>

타코는 LNC를 이렇게 배제의 원리로 이해하면 세계를 구성하는 실재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형이상학적 원리이고, 우리의 관찰이 이 원리와 부합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배제의 원리로서 LNC는 경험세계가 일관된 세계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증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배제의 원리에 따라, 하나의 존재자가 두 개의 상호배타적인

---

<sup>18)</sup> Tahko (2009), p. 33.

속성을 가질 수 없다.

- (2) 모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존재자가 두 개의 상호배타적인 속성을 가져야 한다.
- (3) 따라서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1)을 받아들일 것이다. 문제가 되는 전제는 (2)이다. 배제의 원리가 옳다면 모순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배제의 원리를 어기지 않는 모순이 있다면 (2)는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배제의 원리가 옳음에도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 논증은 건전해 보인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를 옹호하는 볼과 켈리반은 배제의 원리를 어기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전제 (1)의 반례로 자청색의 형겅이나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호한 대상이 실재하는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하게 말해서 배제의 원리를 어기는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형겅 조각이 특정한 색(그것이 자청색이든 회백색이든)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 색을 가질 뿐 그 색을 동시에 결여할 수는 없다.<sup>19)</sup> 또 어떤 사람이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호하다고 해서 그가 대머리임의 속성과 대머리가 아님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는 특정한 머리카락 수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준에 따라 그에게 대머리임의 속성을 부여한다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그에게 동시에 대머리가 아님의 속성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배제의 원리를 어기는 진정한 의미의 모순적 대상이란, 특정한 색깔(그것이 자청색이든 회백색이든)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색깔을 갖지 않는 대상, 그리고 특정한 수의 머리카락 수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 만큼의 머리카락을 갖지 않는 대상이

<sup>19)</sup> 이 논문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자청색’의 사례는 실재하는 모순의 사례라기보다는 일종의 분류적 불완전성으로 이해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

다.<sup>20)</sup>

고유명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장이 가능하다. 한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호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 지역을 우리는 한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한강이 아니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지역이 배타적인 두 개의 속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자들이 말하는 모호한 속성을 지니는 존재는 배제의 원리를 어긴다고 할 수 없고 그 자체로 관찰 가능한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자들이 인정하는 관찰 가능한 모순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분명하게 자신이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자인지에 대해서 중립적인 견해를 취하는 프리스트는 참인 모순이 존재하기 위해서, 즉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가정이 참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 ① 언어 외적인 실체가 존재한다. 이 실체는 어떤 의미에서 명제적인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실체에 대해서 일관된다거나 비일관된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 ② 실체는 대상과 속성의 결합과 같은 사실로 구성된다. 사실의 구조 내에서 언어에서 부정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존재해야 한다.

---

20) 심사위원 중 한 분은 ‘특정한 머리카락의 수를 가짐’과 같이 ‘대머리임’ 역시 세계를 구성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지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대머리임’이 세계를 구성하는 속성이라면 대머리이면서 대머리가 아닌 존재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모순이 실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존재론적 모호성(ontic vagueness)’을 전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모호성을 의미론적 문제로 보는 견해와 더불어 매우 논쟁적인 상태이고, 오히려 입증(설득)의 부담은 존재론적 모호성을 주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사실에는 극성이 있다. 즉  $f^+$ 는  $a$ 를 참으로 만드는 가능한 사실이고, 또한  $\neg a$ 를 참으로 만드는 짝이 되는 사실인  $f^-$ 가 있어야 한다.<sup>21)</sup>

이로부터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자들은  $f^+$ 와  $f^-$ 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재 세계에 참인 모순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neg a$ 를 참으로 만드는 부정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부정적 사실(negative facts)의 존재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극성(polarity) 개념을 통해서 부정적 사실의 존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Beall(2000b)와 Priest(2000)에서 처음 등장한다. 도대체 진리제조자로서 사실이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불이 인식하고 있듯이 그것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미봉적(ad hoc) 장치일 뿐 아닌가? 이에 대해서 불은 물리학의 극성 개념과의 유비를 통해서 대답한다.<sup>22)</sup> 그러나 이 유비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전기력을 지닌 입자의 극성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약한 의미에서라도 관찰 가능한 반면, 진리제조자로서 객관적인 사실이 지닌다고 가정된 극성은 아무런 경험적 근거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실의 극성들은 물리학의 극성들보다 더도 덜도 신비롭지 않다  
(...). 그러한 극성들은 과학에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된

21) Priest (2006), p. 300.

22) 부정적 사실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다. 부정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프리스트나 불처럼 극성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최근 바커(S. Barker)와 자고(M. Jago)가 설명하듯이, 사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대상과 술어 사이의 내적 관계(internal relation)에 있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부정적 사실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다. Barker & Jago (2013) 참고.

다. 그 상황은 정확하게 형이상학의 관점과 일치한다. 사실의 극성들은 세계에서 우리가 관찰하는(see) 종류의 속성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속성의 존재에 반대할 근거는 아니다. (...) 사실의 속성은 [형이상학과 진리론에 관한] 직관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된다. 이렇게 그러한 극성의 가정은 과학에서 극성의 가정과 상세한 점에서는 다르지만, 둘 모두 이론을 설명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가정되는 것이다.<sup>23)</sup>

그러나 형이상학에서 설명되어야 할 자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물리학이 경험적 자료에 의존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형이상학에서 설명해야 할 그런 종류의 자료가 있는가? 물론 형이상학도 경험적 사실과 일관될 필요가 있고, 미래의 관찰을 예측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는 있다. 그리고 사실이 극성을 갖는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모순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사실이 극성을 갖는다는 가정은 부정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일 뿐, 여전히 하나의 사실이 두 개의 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경험적 사실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를 지지할 만한 아무런 경험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경험적 자료는 배제의 원리로 해석된 LNC에 부합하고, 적어도 LNC의 반례일 수는 없다.

요컨대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자들은 모호한 대상을 실재하는 모순적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사실에 대한 극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긍정적 사실과 그에 대응하는 부정적 사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NC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식화에 따라 배제의 원리로 이해하면 모호한 대상은 배제의 원리를 어기는 모순적 대상이 아니고, 극성 개념을 통해서 긍정적 사실과 동시에 부정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경험적 근거도 가질 수 없는

<sup>23)</sup> Beall (2000b), p. 266.

미봉적 가정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적 사실은 배제의 원리로서의 LNC를 뒷받침한다. 결국 배제의 원리로서 LNC는 세계를 구성하는 실재에 대하여 모종의 제한을 하는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 5. 맺는 말

형이상학적 양진주의에 대하여 평가하고 LNC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i)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는 진리 대응설과 양립가능한가, (ii) 관찰 가능한 모순은 있는가, 즉 실재 세계에 모순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iii) LNC는 언어와 사고의 법칙인가, 세계의 구조를 제한하는 형이상학적 원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양진주의와 진리 대응설은 양립한다고 주장하려면 전진주의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전진주의를 거부하는 한 양진주의가 진리 대응설과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재 세계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경험적, 선험적 증거가 없으며, LNC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식화에 따라 배제의 원리로 이해하면 실재 세계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LNC가 주장하는 바가 배제의 원리임을 논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실재 세계는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세계이고 따라서 실재 세계에 모순은 존재하지 않고 일관되며 관찰 가능한 모순은 없다. 결국 형이상학적 양진주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가 아니다.



## 참고문헌

- Aristotle (1984), *Metaphysics*, trans. W. D. Ross, revised by J. Barn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rmour-Garb, B. & JC. Beall (2002), “Further Remarks on Truth and Contradiction”, *The Philosophical Quarterly* 52(207), pp. 217-225.
- Barker, S. & M. Jago (2012), “Being Positive About Negative Fact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85(1), pp. 1-18.
- Beall, JC. (2000a), “Is the Observable World Consistent?”,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8(1), pp. 113-118.
- Beall, JC. (2000b), “On Truthmakers for Negative Truth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8(2), pp. 264-268.
- Beall, JC. & M. Colyvan (2001), “Looking for Contradiction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9(4), pp. 564-569.
- Berto, F. (2008), “Ἀδύνατον and Material Exclusion”,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6(2), pp. 165-190.
- Grim, P. (2006), “What is a Contradiction?”, in Priest, G., Beall, JC. and Armour-Gab, B. (eds.), *The Law of Non-Contradi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9-72.
- Kroon, F. (2006), “Realism and Dialetheism”, in Priest, G., Beall, JC. and Armour-Gab, B. (eds.), *The Law of Non-Contradi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45-263.
- Mares, E. (2006), “Semantic Dialetheism”, in Priest, G., Beall, JC. and Armour-Gab, B. (eds.), *The Law of Non-Contradi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64-275.

- Priest, G. (1999), "Perceiving Contradiction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7(4), pp. 439-446.
- Priest, G. (2000), "Truth and Contradiction", *The Philosophical Quarterly* 50(200), pp. 305-319.
- Priest, G. (2006), *In Contradiction: A Study of the Transconsistent*, 2<sup>nd</sup> expanded ed., Oxford: Clarendon Press.
- Tahko, T. (2008), "The Metaphysical Status of Logic", *The Logica Yearbook 2007*, Prague, Filosofia, pp. 225-235.
- Tahko, T. (2009), "The Law of Non-Contradiction as Metaphysical Principle", *Australasian Journal of Logic* 7, pp. 32-47.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Ajou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hasong@ajou.ac.kr

song1959@hanmail.net

## ARTICLE ABSTRACTS

---

Law of Non-Contradiction as a Metaphysical Foundation:  
Is a Contradiction Observable?

Hasuk Song

---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metaphysical dialetheism is a persuasive view or not. Tha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the metaphysical dialetheism by answering three questions, whether the dialetheism is compatible with 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whether there is an observable contradiction, finally what the status of LNC is.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dialetheism is incompatible with 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because it results in trivialism to suppose that two views are compatible. It is also claimed that LNC should be understood as the principle of exclusion which constrains the structure of the world and that the real world is consistent. Therefore, there is no observable contradiction in the world and the metaphysical dialetheism is not persuasive.

Key Words: Law of Non-contradiction, Dialetheism,  
Para-consistency Logic, Semantic Paradox,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